

촉법소년법 폐지 반대

소방안전학부 202211775 번서진

1. 서론

최근 집단 폭행, 성범죄, 무면허 운전, 절도, 살인등 범죄를 저지르고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수법 또한 잔인해지면서 촉법소년 촉법소년 처벌을 강화해야하는가 라는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은 무조건 처벌하기보다, 반성하고 변화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촉법소년을 폐지한다면 소년범들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성인범과 한 방을 쓰게되면서 성인이 되기전에 더 넓은 범죄의세계에 눈을 뜰수도 있게 된다.

그러면여러 범죄를 접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가면서 사회에 나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에 촉법소년 강화를 반대한다.

2.본론

2.1 소년범이 생기는 원인으로 사회적 문제도 고려해야한다.

경제적 어려움(27.4%) 미래에대한 불안(26.5%) 친구들의 유혹(17.7%)로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배경에 한부모자녀이거나 망가져있는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이 큰 열할을 하기에 이러한 소년범들을 만드는 사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렇듯 청소년은 인격적으로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말 그대로 미성년자다.

선악 판단이 부족하며 범죄에 노출되기는 쉬운 시기다. 성장 과정에있는 이런 학생은 사회 전체가 책임을 더 느끼며 교화와 지도, 훈육 중심으로 정상적인 성인이 되도록 이끌고 살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을 당사자는 물론 개별 가정에만 맡겨둘 수도 없다.

예전과 달리 부모 중 한쪽과만 생활하는 경우도 많고, 사회·경제적으로 양극화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가정도 적지 않다. 학교와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가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심정으로 보살피면서 안고 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처벌 강화만이 해법은 아니다.

2.2 UN아동권리협약 위반이다.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에 가입되어있으며 가입국으로서 UN의 권과항을 성실히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헌법 제 6조에 의하면 "채결&공포된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라고 한다. 이곳에 따르면 유엔은 2019년기준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연령을 낮춘다는 주장은 힘들 것이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중신형은 18세 미만의사람이범한 범죄에대해 과해져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37조에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9~19세로 구성된 미성년자 집단의 협박 및 금품갈취, 성폭행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엄벌 하겠다는 취지로 내렸던 1995년 11월 2일의 미성년자 사형 선고와 집행은 국제사회로부터 적지 않은 지탄을 받아오기도 했다.

이처럼 과거의 한국이 소년범들에게 강하게 대응을 하였지만 생각보다 그 효과는 미미했다. 수 있기에 자제해야한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해도소년 범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아직 미성숙한 촉법소년에게 처벌보다 교화를 통한 변화할 기회를 줘야한다

3.반론 및 재반론

3.1 갈수록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죄질 또한 가볍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촉법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관련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중형을 선고했을때 교화시키기 힘들 거다 오히려 열악한 교화 프로그램의질을 높이고, 소년범의 사고를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먼저다 위험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무조건 더 강한 벌을 주려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무서운 10대라는 그런 언론표현의 편견이 오히려 범죄율을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자제해야한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해도소년 범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아직 미성숙한 촉법소년에게 처벌보다 교화를 통한 변화할 기회를 줘야한다

3.2

4. 결론

5. 참고문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34886632523752&mediaCodeNo=257&OutLnkChk=Y>

성주원 촉법소년 범죄 하루 34건꼴...진영논리에 발목 잡힌 '소년법'

<https://v.daum.net/v/20221102000320062>

전재욱 사형장서 장기기증한살인범, 증오로 일관한 지존파

<https://www.news1.kr/articles/4846043>

이승현 '만 14세→만13세' 촉법소년 연령 하향...찬성 vs 반대 팽팽